

세미나자료 2020-03

2020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코로나19 사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의 대응 방안

2020. 7. 1.(수) 10:00~12:0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 2020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 주 제 | 코로나19 사태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의 대응 방안

| 일 시 | 2020. 7. 1(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하움

일/정/

시 간	내 용
09:40~10:00	<input type="checkbox"/> 등 록
10:00~10:2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사회: 문무경 기획조정본부장
	<input type="checkbox"/> 환영사 백선희 소장
10:20~10:30	<input type="checkbox"/> 참석기관 소개 참석기관 대표자
10:30~11:00	<input type="checkbox"/> 발표(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치원·어린이집의 대응 방향 및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최윤경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조숙인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국제통일연구팀)
11:00~11:50	<input type="checkbox"/> 참석기관 사례발표 기관별 발표 (발표시간: 7분 이내)
11:50~12:10	<input type="checkbox"/> 자유토론 및 폐회

Contents | 2020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환 영 사	1
백 선 희(육아정책연구소장)	
발표(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치원·어린이집의 대응 방향 및 과제	3
최 은 영(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13
최 윤 경(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23
조 속 인(육아정책연구소 국제통일연구팀 부연구위원)	
참석기관	39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도 코로나19의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아, 예정했던 날짜보다 한 달을 늦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한 달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을 일상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체온 재기가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주의만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우선, 관련 주제로 ‘육아정책 Brief’를 3월 초에 발간했으며, 수시과제, 협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태계 포럼에서 발표하게 될 3개의 연구도 이러한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장기간 동안 가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영유아 돌봄 놀이꾸러미’를 코로나19 재난 피해지역인 대구시의 영유아 가정 1천200여 세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보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라는 교육·보육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주제를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는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기관에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사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로 기억될 겁니다. 2020년 제1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도 그 기억의 한 자리로 남길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 7. 1.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 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치원·어린이집의 대응 방향 및 과제

최 은 영(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연구위원)

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치원·어린이집의 대응 방향 및 과제¹⁾

최 은 영(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연구위원)

1. 배경

-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고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유아가 바람직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념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하고 대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질병과 사고 발생 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예방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정미라, 배소연, 이영미, 2012).

- 영유아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하여 전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또한 호기심이 많은 반면에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서현미·전미향·최나영, 2009).

-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의 질병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 본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 점검 및 대응방안’(미발행)에 기초하여 작성됨.

- 김일옥과 박현정(2014)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실태 및 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감염병의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 '격리 공간 부족', 감염병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감염병에 대한 지식 부족'이 보고됨.
- 감염병 예방 지식에 대한 교육 요구도의 경우 '감염병 관찰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위생관리 영역', '환경관리 영역' 순으로 교육이 요구되는 형태를 보임(김일옥, 박현정, 2014).

□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민감성과 즉각적인 대처는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선결 요건임.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감염병 관리 현황²⁾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 발생시 질병에 따른 격리 또는 귀가조치 규정이 있는 비율은 98.1%로 조사됨.

-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유치원은 95.1%, 어린이집은 99.6%로 다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chi^2(df)=29.903(1)$, $p < .001$).

[표 1] 전염성 질환 발생시 질병에 따른 격리 또는 귀가조치 규정 마련 여부

구분	단위: %(명)				
	있음	없음	계	사례수	$\chi^2(df)$
전체	98.1	1.9	100.0	(1,217)	29.903(1)***
유치원	95.1	4.9	100.0	(409)	
어린이집	99.6	0.4	100.0	(808)	

*** $p < .001$

자료: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2)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에서 발췌·정리함.

□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를 격리하거나 돌보는 공간이 있는 비율은 48.7%, 없는 비율은 51.3%로 조사됨.

- 정원규모가 커질수록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chi^2(df)=65.448(4)$, $p < .001$), 특히 정원이 20명 미만 기관이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71.8%로 나타남.
- 별도의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원장실, 교무실 등 업무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표 2]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 격리/돌보는 공간 마련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사례수	$\chi^2(df)$
전체	48.7	51.3	100.0	(1,217)	
유치원	50.4	49.6	100.0	(409)	0.663(1)
어린이집	47.9	52.1	100.0	(808)	
정원 규모					
20명 미만	28.2	71.8	100.0	(174)	65.448(4)***
20~50명 미만	43.5	56.5	100.0	(460)	
50~100명 미만	54.1	45.9	100.0	(281)	
100~200명 미만	62.1	37.9	100.0	(243)	
200명 이상	69.5	30.5	100.0	(59)	

*** $p < .001$

자료: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 전염성 질환 발생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대체로+매우)고 응답된 비율이 '별도로 돌볼 인력'은 89.2%, '격리할 공간'이 81.8%, '격리기준 명확성'이 70.3%, '부모의 이해'가 63.6%로 나타남.

-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별도로 돌볼 인력'(t = 22.431, $p < .001$), '격리할 공간'(t = 9.276, $p < .01$)과 '부모의 이해'(t = 17.969, $p < .001$)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 발생시 어려움 정도가 높은 항목은 인력과 공간 부족임.

[표 3] 전염성 질환 발생시 어려움 정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사례수	평균 (점)	t
별도로 돌볼 인력	2.4	8.4	30.2	59.1	10.8	89.2	100.0	(1,217)	3.46	
유치원	3.4	13.4	31.1	52.1	16.9	83.1	100.0	(409)	3.32	22.431***
어린이집	1.9	5.8	29.7	62.6	7.7	92.3	100.0	(808)	3.53	
격리할 공간	4.2	14.0	33.7	48.2	18.2	81.8	100.0	(1,217)	3.26	
유치원	5.1	18.3	32.5	44.0	23.5	76.5	100.0	(409)	3.15	9.276**
어린이집	3.7	11.8	34.3	50.2	15.5	84.5	100.0	(808)	3.31	
격리기준 명확성	9.0	20.7	38.6	31.6	29.7	70.3	100.0	(1,217)	2.93	
유치원	9.3	20.3	38.9	31.5	29.6	70.4	100.0	(409)	2.93	0.002
어린이집	8.9	20.9	38.5	31.7	29.8	70.2	100.0	(808)	2.93	
부모의 이해(협조)	10.1	26.3	36.2	27.4	36.4	63.6	100.0	(1,217)	2.81	
유치원	11.7	32.0	35.9	20.3	43.8	56.2	100.0	(409)	2.65	17.969***
어린이집	9.3	23.4	36.3	31.1	32.7	67.3	100.0	(808)	2.89	

** $p < .01$, *** $p < .001$

주: ① 전혀 부족하지 않음, ② 별로 부족하지 않음, ③ 대체로 부족함, ④ 매우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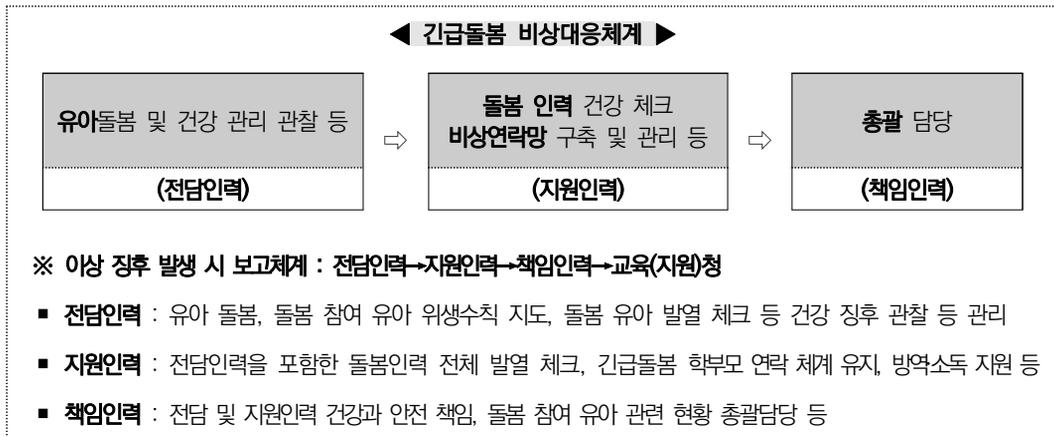
자료: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유치원 유아에 대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하고, 유치원 내 긴급 돌봄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및 사안 대응을 위한 구체적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³⁾.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 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 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음.

3)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주: 초등유치원장은 병설유치원과 병설된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 긴급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가능

자료: 교육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유치원 긴급돌봄운영 관리 지침(매뉴얼).

□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음⁴⁾.

- 이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휴원하고, 휴원 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전화(매일 1회)를 필수로 하도록 안내함⁵⁾.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 2시간 연장(교육부), 가족돌봄휴가제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함⁶⁾. 정부의 즉시적인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현실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학기초 신입생들의 적응 문제로 긴급돌봄 이용의 어려움, 가족돌봄휴가의 실제 사용의 한계 등으로 돌봄공백을 호소하는 경우도 여전함⁷⁾.

- 개학 연기로 인한 원비 환불 요구, 교사의 급여, 긴급돌봄 교사 마스크 지원, 돌봄교사의 감염 우려, 돌봄교사 자녀의 돌봄공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위생과 안전문제 등 세부적인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5) 보건복지부(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 판.

6) 뉴시스(2020. 3. 6). 긴급돌봄 저녁 7시까지 연장... 아동수당 40만원 추가지급.

7) 한국일보(2020. 3. 4). 신입생·특수학교는 어떻게 하라고... 돌봄 없는 '긴급돌봄'.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향 및 과제

□ 영유아 우선의 감염병 대책 수립

- 신종 감염병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발생과 동시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므로 정부나 국민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즉시성 있는 대안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돌봄제공자 중심의 정책이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음.
-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가 격리라고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즉, 원인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조치는 가정돌봄일 것임. 가정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재난특별휴가 등의 한시적 유급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영유아는 감염병에 취약하고, 발달 특성상 성인보다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기관돌봄을, 기관돌봄 또한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돌봄을 차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설계가 요구됨.

□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를 격리하거나 돌보는 공간이 없는 비율은 51.3%이며, 정원 규모가 20명 미만인 71.8%, 100명 미만도 45.9%로 나타남⁸⁾(최은영 외, 2017).
- 3학급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다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신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유아를 별도로 돌보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선결 요건이므로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개별 기관들이 격리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

□ 보건교사 배치

- 최은영 외(2017)의 연구에서 전염성 질환 발생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별도로 돌봄 인력 부족이 89.2%로 가장 높았으며, 별도의 보건실(양호실)과 보건교사가 있는 기관은 정원 규모 100명 이상으로 나타남.
- 100인 이상 기관(시설)의 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인 미만 기관(시설)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9)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소독/위생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로 각각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적용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상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소독 의무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교직원 위기대응 능력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앱 개발·보급

- 전염성 질환 발생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 중 하나는 격리기준 명확성 부족으로 전체 응답자의 70.3%로 나타남⁹⁾.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강관리,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손쉽게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사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질병별, 증상별 대처 방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하여 정보 접근이 유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가정돌봄 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휴원 중인 영유아를 위해 가정용 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정기반 학습자료를 개발함. 학습자료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안전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음.¹⁰⁾
- 중국 허난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침과 절차(가이드라인)를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 실행을 요청함. 학교 유형(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별로 개학 전, 개학 당일, 개학 후, 전염병 통제 이후로 구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¹¹⁾.
- 개원 연기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자료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nTbBoardArticleSeq=825302>에서 2020. 3. 11 인출

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nTbBoardArticleSeq=825300>에서 2020. 3. 11 인출

| 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2 |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최 윤 경(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 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육아정책연구소(KICCE)
최윤경

2020. 7. 1
육아정책연구소 생태계포럼

1

1_코로나19 자녀양육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1)

- 자녀양육가구의 소득/근로시간 감소, 가계지출 증가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의 체감이 큼.

단위: 점 N=564

가구소득	부 근로소득	모 근로소득	가구지출	자녀양육 지출	부 근로시간	모 근로시간
2.61	2.70	2.71	3.12	3.01	2.85	2.78

자녀와 보내는 시간	집안에 있는 시간	TV/미디어 이용 시간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4.07	4.46	4.18	3.45	3.15

주: 상당히 줄어듦/나빠짐 1점, 약간 줄어듦/나빠짐 2점, 변화없음 3점, 약간 늘어남/좋아짐 4점, 상당히 늘어남/좋아짐 5점 응답 평균 (초등3년이하 자녀 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 2020. 3. 25~27)
자료: 최윤경(2020), 최윤경 외(2020, 미발간).

2

2_코로나19 자녀양육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2)

- 집안에 있는 시간(85.5%), 자녀와 보내는 시간(72.2%) TV/미디어 시간(77.8%) 증가
 - 좋아짐: 부모-자녀관계(39.7%), 부부관계(20.9%)
 - 나빠짐: 부모-자녀관계(6.6%), 부부관계(10.3%)
- 특별재난지역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나빠진 응답 많음
 - 소득 줄어듦(재난지역 43.6%, 다른지역 29.3%)
- 취약특성을 가진 경우(N=45) 그렇지않은 경우 대비
 - 부모-자녀관계 나빠짐(취약 14.2%, 비취약 5.2%).
 - 부부관계 나빠짐(취약 20.4%, 비취약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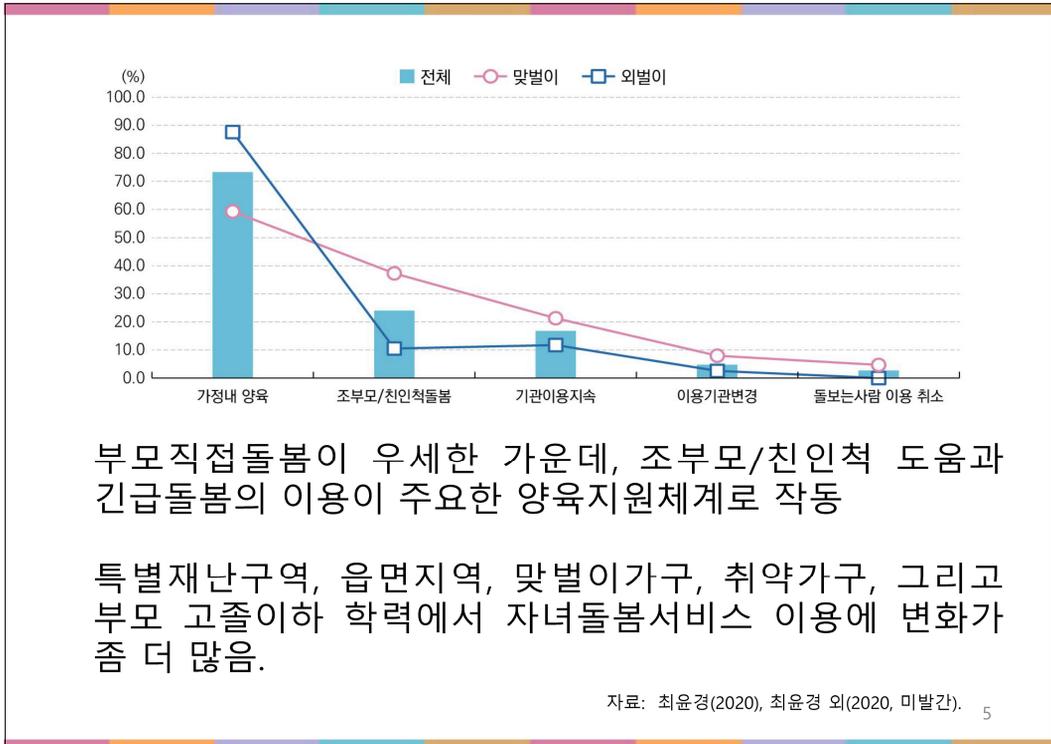
3

3_코로나19 자녀돌봄 현황

- 감염팬데믹하 그 간의 양육방식과는 다른 돌봄을 선택
 - 가정내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
 - 일가정양립의 지원과 어려움 모두 경험
- 돌봄공백의 경험 36.2%
 - 맞벌이가구 49.4%, 비맞벌이가구 21.2%
 - 특별재난지역 41.8%, 특별재난지역 외 34.8%
 - 취약가구 46.9%, 비취약가구 35.1%
-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 59.0%

자료: 최윤경(2020), 최윤경 외(2020, 미발간).

4



구분	코로나 전-후 시점	부모 직접돌봄	아버지가 주로 돌봄	어머니가 주로 돌봄	부모 함께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영아자녀	전	33.2	3.6	29.2	7.9	18.6
	후	39.5	7.5	36.8	12.3	20.9
유아자녀	전	15.0	1.4	13.6	4.3	6.4
	후	38.2	10.0	29.6	15.0	26.4
초등자녀	전	24.4	5.0	20.1	4.3	12.6
	후	44.7	7.0	35.2	7.7	20.3

휴원기간 전-후(2월말 vs. 3월말) 가정내 자녀 돌봄
- 모의 돌봄이 크게 늘어나 성별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부의 돌봄과 부모 함께돌봄의 비중도 증가

자료: 최윤경(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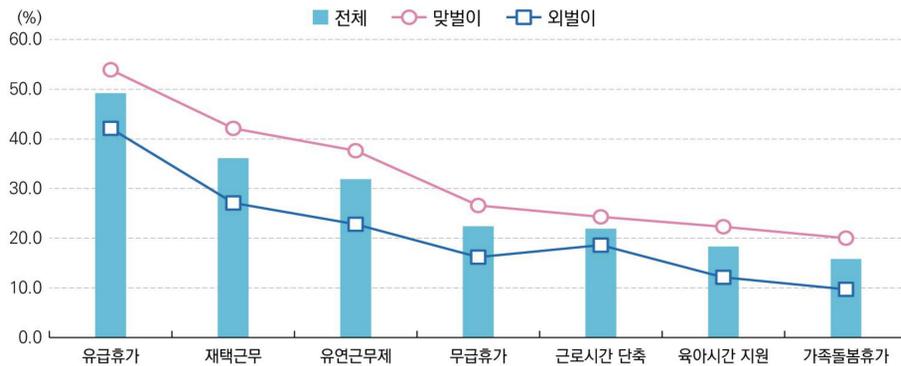
구분		아이 돌보미	민간 베이비 시터	어린이 집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 /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육아공동체	자녀 혼자 있음
영아	전	2.8	2.0	23.7	2.8	2.0	3.6	2.0	1.2	2.4
	후	3.2	2.8	13.0	1.6	3.2	4.0	2.4	3.2	2.4
유아	전	2.1	.7	33.9	18.2	2.5	2.5	1.8	1.4	2.9
	후	3.9	5.0	14.3	6.4	3.6	2.1	2.1	2.1	5.0

구분		초등 돌봄 교실	지역 아동 센터	온종일 돌봄	학원: 학습 관련	학원: 예체능	학원외: 기타	공공 기관/인프라	문화/오락/체험	자녀 혼자 있음
초등	전	.2	5.9	10.8	20.1	2.5	1.1	6.8	6.5	.9
	후	5.2	2.5	2.7	7.4	5.6	12.2	2.9	3.4	8.6

- 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초등 1-3학년의 경우 혼자있음 8.6%, 기타 사교육 10% 내외를 보임.

자료: 최윤경(2020), 최윤경 외(2020, 미발간).

4_코로나19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 육아지원인프라 휴원·휴업 조치 이후, 취업부모는 '유급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 '무급휴가'사용 20% 이상
-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이용이 30% 이상

5_코로나19 자녀돌봄 지원·제도 이용 및 선호

- 일가정양립 시간지원과 유연근무제 이용은
 - 맞벌이가구의 이용률이 일관되게 높음.
 - 유급휴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에 비해 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부의 이용률은 약 15~50%를 보임.
- 자녀돌봄 지원·제도 선호도
 - 부모직접돌봄(38.1%), 아동수당 추가지원(31.4%)
 - 조부모/친인척돌봄(17.1%)
 - 재택근무(16.3%), 가족돌봄휴가(14.5%), 어린이집 긴급돌봄(9.2%)

자료: 최윤경(2020), 최윤경 외(2020 미발간)

9

6_코로나19로 드러난 아동돌봄의 쟁점

- 가정내 돌봄역할 수행/지원제도 이용의 성별격차 여 전. 그러나 부의 참여 또한 증가세
 - 공적돌봄체계의 강화 속에 돌봄역할의 성별편향/회귀와 함께 일가정양립의 지원정책 효과 나타남.
- 감염팬데믹 하에서도 다양한 돌봄수요 내재
 - 가정내돌봄의 증가속에서 기존서비스 이용 지속, 돌봄공백의 경험, 기타서비스의 이용, 자녀혼자있음이 일정비율을 보임
 - 방역이 보강된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필요

자료: 최윤경(2020), 최윤경 외(2020, 미발간).

10

7_영유아 교육·보육·돌봄 체계 정비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과 교직원 고용 유지, 긴급돌봄의 제공에 큰 변화 없음.
- 그러나 저출산 추세로 아동수가 감소하고, 감염팬데믹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영유아기 전반에 서비스 이용과 돌봄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남.
 - 교육보육돌봄 체계 전반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기준(예: 교사대아동비율, 공간기준, 온오프라인 커리큘럼 운영, 인력배치 등) 정비필요

자료: 최윤경(2020), 최윤경 외(2020, 미발간).

11

8_코로나19 아동의 생애발달과 격차에 유의

- 특히 생애초기 경험의 누적적·결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감염팬데믹으로 인한 육아환경의 변화가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됨.
- 『온·오프라인 Blended Care and Education System』으로서의 육아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이 변화 속에서
 - 사회경제적, 지역간의 격차
 - 취약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소외와 편향,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고 모니터링하는 육아지원체계의 가동과 재편이 시급함.

자료: 최윤경 외(2020, 미발간).

12



참고문헌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미발간).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문무경(2020 미발간). (가제) 영유아 교육보육돌봄 대응 전략과 사각지대 보완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코로나대응 협동연구-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 대응(추진 중).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여름호
- 최윤경(2020).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4. 14). 육아정책연구소

13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3 |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조 속 인(육아정책연구소 국제통일연구팀 부연구위원)

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3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조 속 인(육아정책연구소 국제통일연구팀 부연구위원)

연구명: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저자명: 조속인, 송하나, 김연수, 김주련, 김문정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유아의 기관 생활과 주변 환경 변화, 장기간의 가정교육으로 인해 영유아와 부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
- 재난 상황에서의 건강한 돌봄을 위해 부모와 영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 내 양육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서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장기화된 재난 상황에서 가중된 부모와 교사의 스트레스는 영유아에 대한 부정적 양육과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돌봄 주체로서 부모와 교사의 재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본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 영유아의 심리적 건강을 돕기 위해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난 극복 심리방역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부모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온라인 시리즈 개발

2020년 4월 15일(월)부터 5월 4일(월)까지 일주일 1편씩 총 4편을 배포함.

1.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2.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 자신부터 돌보세요.
 3.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4. 재난 후 준비하기
- 부모·교사 대상으로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개발, 2020년 6월 23일(화)에 배포함.

□ 연구결과물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4편 (별첨)
-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표지 및 목차 별첨)

□ 활용 방안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와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통해 가정으로 전달되어 가정 내 심리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와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kicce.re.kr)에 게시되어 있음.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의 내용은 유아교육 전문지인 '꼬망세'와 '월간유아' 7월호에 코로나19 관련 기획 기사로 소개됨.
-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의 내용은 '월간유아' 8월호에 코로나19 관련 기획 기사로 소개될 예정임.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①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1 일상의 변화, 아이들에게는 어른보다 더 큰 스트레스

-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인한 놀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쉽게 알아차립니다.
- 어린 아이일수록 반복적이고 일관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일상생활이 달라질 때 어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평소와 똑같은 수는 없겠지만 낮밤이 바뀌지 않도록 기상, 식사, 놀이, 취침 시간대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2 말보다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아이들

- 아이들의 언어 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 재난 상황을 목격하거나 가족의 사망을 경험한 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평소와 크게 달라진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
 - 식습관 변화, 수면의 어려움, 아노증, 악몽,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 분리 불안, 아기 짓과 같은 퇴행 행동
 - 성격의 극적 변화, 파괴적 놀이, 짜증/공격성 증가
 - 죽음에 대한 언급



TIP - 미디어 속 재난,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한 행동변화를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①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3 부모의 반응을 통해 재난 상황을 이해하는 아이들

- 아이들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부모의 반응을 보고 이를 이해하려 합니다.
- 부모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겁을 먹고 불안해합니다.
- 재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재난 그 자체보다 부모의 비탄,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행동, 정서적 방임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TIP

강압적 표현, 비탄 NO!

아이들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와 같이 죄책감을 주는 말은 하지마세요.

4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 아이들

- 아이들은 부모가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내가 말하면 엄마가 걱정할거야"라고 생각합니다.
- 큰일을 겪었을 때도 이를 말하지 않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난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나이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TIP

-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도와 주세요.
- 그림, 놀이, 춤 등을 표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①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②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자신부터 돌보세요

1 엄마, 아빠의 양육 스트레스 스스로 체크하기

- ▶ 기관과 돌봄 서비스의 장기 휴원으로 아이와 종일 집에 있는 일이 어려우시죠? 재난 상황으로 인해 평소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 ▶ 우선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가 과도하지는 않은 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 다음 중 “매우 그렇다”고 느끼는 문항에 표시 해주세요.

- ▶ 부모로서의 역할이 너무 피곤해서 짐이 부족하고 멍하다고 느낀다.
- ▶ 아이를 기른 이후로 양육 이외의 다른 일들은 거의 할 수 없다.
-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 ▶ 종종 우리 아이는 나를 짓궂게 괴롭히려려고 한다.
- ▶ 일상에서 아이를 재우고 먹이는 일들이 너무 어렵다.
- ▶ 아이를 돌보는 데 남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 ▶ 재난 상황에서 높아진 양육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학대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 부모가 먼저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문항이 많을수록 현재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5개 이상의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느낀다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2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시라도 숨 돌리기



- ▶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간에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 ▶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가 심하면 예상치 못하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수 있어요.
- ▶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아이가 안전하다면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리세요.
- ▶ 아이와 모든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물리적 거리를 두고**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세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②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자신부터 돌보세요

3 아이와 매일 새로운 놀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은 NO!

- 가사 노동과 돌봄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매번 새로운 놀이감과 새로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 어린 아이일수록 친숙한 반복적 경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놀이를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하루 일과를 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 마세요.
- 아이는 부모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덜 느끼고 잘 적응합니다.



4 아이의 학습 지연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NO!



-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져 집 안에서 머무를수록 자칫 우리 아이가 교육이 부족해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영어 한 단어, 책 한 권 더 읽히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쓰지 마세요. 불안이 높을수록 아이의 학습 효과는 떨어집니다.
- 아이들은 흥미와 동기만 충분히 유발된다면 나중에도 충분히 학습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5 아이와 함께 하는 이 시간 = 내 아이를 알아가는 기회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미처 몰랐던 내 아이의 특성을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디어나 온라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세요.
-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식단을 짜고 식사 준비를 하거나 청소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어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①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②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자신부터 돌보세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③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1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경험 = 극심한 스트레스

-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때문에 갑자기 부모와 떨어지게 되거나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 애착대상인 부모와 떨어졌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른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숨기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분노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아이들은 분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우울, 불안, 수면, 배변문제, 두통이나 복통 호소
 - 악몽, 소리치기, 분리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
 - 깜짝 놀라기, 공격성, 위축, 반항성, 주의산만, 충동성 증가
- 분리 이후 아이의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따뜻하게 돌보아주세요
- 특히,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전문가의 상담이나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아이들의 분리-상실 반응 3단계: 저항 → 절망 → 초연

-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거나 부모의 죽음을 겪은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경험합니다.

1단계: 저항

제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꾸 화가 나고
눈물이 나요.



2단계: 절망

엄마, 아빠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3단계: 초연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③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3 아이 눈높이에 맞게 상황 설명하기

- 연령에 따라 아이들이 부모와의 분리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아이 수준에 맞추어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아이가 어리다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 분리된 상황에 대해 부모들이나 주변 어른들 모두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질문에 잘 답해주세요.
- 아이에게 엄마, 아빠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규칙적으로 엄마, 아빠와 전화나 영상 통화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일관된 반응 YES! 환경 변화는 NO!



-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주는 주변 어른들이 아이의 행동 변화에 동일하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 아이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답하고, 아이와 한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 엄마, 아빠의 부재로 아이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쉽게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집, 기관, 일상활동 등)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심리학회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 ①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 ②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자신부터 돌보세요.
- ③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④

재난 후 준비하기

1 재난 후 지속적으로 내 아이 살피기

- 위기가 끝난 후에도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재난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넌 왜 엉뚱한 질문을 하니?”,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 등 아이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 엄마, 아빠의 아낌없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 아이들은 친구와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밖에 나갔다가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면 안전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 오랜 격리 후에 경험하는 일상이 낯설 수 있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가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잘 적응 할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일상생활 적응 체크하기

-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예전과 같이 생활하는지 살펴보세요.

※ 다음 중 아이가 '자주' 보이는 행동에 표시 해주세요.

- ▶ 코로나 위기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한다.
- ▶ 짜증을 많이 부리고 화를 낸다.
- ▶ 코로나 위기에 관련된 꿈을 꾀다.
- ▶ 큰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 벌 정도다.
- ▶ 하는 일에 집중을 심하게 못한다.
- ▶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 ▶ 초긴장이 되어 있다.
- ▶ 마음속에 코로나 관련 장면이 보인다고 한다.



* 영유아 재난 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 070-5067-2619, 2819, 571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국가트라우마 센터 02-2204-0001~2
한국발달심리학회 <http://www.baldal.or.kr>

* 해당되는 문항이 많을수록 코로나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입니다.

* 5개 이상의 문항에 '자주 그렇다'고 느낀다면, 아동심리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④

재난 후 준비하기

3 아이의 사회적 활동 서서히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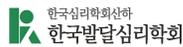
- 일상생활 복귀 초반에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재난 상황에서 가족끼리 함께 한 특별한 활동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중단하지 말고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아이의 사회적 활동 (예: 친구와 같이 놀기)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위기 극복을 함께 축하하기



-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것에 대해 아이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기관과 돌봄서비스 휴원 기간 동안 아이가 감염병 예방 규칙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 아이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미래의 위기도 함께 이겨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앞으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아이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족들만의 지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 ①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 ②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자신부터 돌보세요.
- ③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 ④ 재난 후 준비하기

사업보고 2020-01



·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목 차

- 01** 감염병 재난이란? ... 4
- 02** 감염병 재난은 왜 스트레스일까요? ... 5
- 03**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알아보기 ... 6
- 04** 영유아 부모와 교사를 위한 감염병 재난 기본 대응 방법 ... 9
- 05**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이해하기 ... 12



06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 설명하기 ... 16

07 재난 후 영유아가족 적응 돕기 ... 21

08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영유아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 25

09 기타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 33

10 영유아와 함께 하는 마음 도닥이기 활동 ... 36

